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동향 - 주제범위 문헌고찰

임동희*, 조영란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Research Trends in Korea on Mature Nursing Students - A Scoping Review

Dong-Hee Lim*, Young-Ran Cho
Department of Nursing, Gimhae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대학의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5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KMbase: Korean Medical database, 이하 KMbase), 한국학술정보(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이하 K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이하 NDSL),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이하 RISS), 누리미디어(DBpia: 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이하 DBpia)이다. 문헌검색 결과 총 148편의 국내 연구가 확인되었다. 공동연구자와 교차 검증 및 서지관리 프로그램 앤드노트(endnote)를 이용하여, 중복 연구 42편, 제목 및 초록을 확인하여 주제 및 대상이 맞지 않는 연구 83편, 본문을 확인하여 주제 및 대상이 맞지 않는 연구 4편을 제외하여, 최종 19편의 문헌이 본 연구에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학업과 대인관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전문직으로서 미래발전을 추구하며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통해 각 대학에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습능력을 증진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화에 기여하며,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university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university program development that would support the adaptation of these students to college life. We conducted research focusing on five online databases using the topic range literature review method. The databases used for the search were 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and 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 148 domestic studies were initially selected. Using the cross-validation and bibliographic management program and note with collaborators, we found 42 duplicate studies and 83 studies that did not match the subject by checking the title and abstract or the subject by checking the text. The final 19 shortlisted document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tudent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the areas of academic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ch are active areas for nursing university students. However, even though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they continued their pursuit of future professional development while striving to adapt to reality.

Keywords : Mature Students, Adult Learners, Later Learners, Nursing, Scoping Review

*Corresponding Author : Dong-Hee Lim(Gimhae College)

email: morngo@gimhae.ac.kr

Received October 20, 2021

Accepted February 4, 2022

Revised November 10,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취업난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아나서는 성인들이 증가하며, 다시 대학을 찾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1]. 이와 같이 대학 진학의 적령기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25세 이상의 나이에 공부하는 성인학습자를 만학도라고 한다[2]. 만학도들의 유형을 보면, 적절한 시기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문맹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습현장을 찾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만학도들은 기존의 이유 외에도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3]. 대학은 이런 수요에 대응하여 만학도와 편입생을 대학으로 유도하여[2,3], 2020년 입학생 기준 만학도는 28,452명(5.4%), 편입생은 36,172명이 대학에 재학중이다[4]. 다른 전공계열의 편입생 수와 비율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달리, 보건·의약계열의 경우 전문대학은 2006년 91,160명(11.1%)에서 2020년 129,008명(20.7%)으로, 4년제 대학은 2006년 64,819명(3.4%)에서 2020년 133,762명(6.8%)으로 각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4]. 이는 간호사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보건 의료 정책의 강화로 학생들의 관심이 보건 의료 계통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공 학과의 재학생 연령이 점차 증가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1,4,5].

한편 간호학의 경우 학생들이 이론수업의 방대한 학습량 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학문이다[6].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직군 중에서도 높은 스트레스와 업무강도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재직률이 낮은 직업으로 많이 알려진 직업이다[7].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편견과 세대차이로 다양한 갈등상황을 경험하며[1], 이러한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학습의 어려움을 넘어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게 된다[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질적연구를 통해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학업 및 대인관계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나[1,2,5], 실질적으로 학과 및 학교에서 운영할 구체적인 프로그램 방향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다수의 연구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로 수행되어 만학도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의미를 확장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연구근거를 합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고찰방법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 중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방법은 광범위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기 전 연구정

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하는데 사용된다[9]. 이러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특정질문의 상세한 답변 보다 범위가 넓은 분야의 개요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수행되는 문헌고찰 방법의 하나이다[10]. 또한, 특정분야에서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선행연구로부터 더욱 정련화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주제로 진행되어 온 연구들에 대해 분석하며[11],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전파하며 기존 문헌과의 연구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12].

이에 본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만학도 간호대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만학도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빈도를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만학도 간호대학생 연구를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적응을 돕기위한 대학의 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국내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는가?”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이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전통적인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과는 다른 유형의 문헌고찰 방법이다.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증재 및 연구분야 주제를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주제 영역의 근거를 매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10].

2.2 연구절차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수행절차는, 1단계 : 연구질문

개발 및 도출하기(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2 단계 : 관련연구 검색(identifying relevant studies), 3 단계 : 문헌선정(study selection), 4단계 : 자료기입(charting the data), 5단계 : 결과분석, 요약, 보고(collating, summarizing and reporting result), 6단계 : 전문가 회의 개최(consultation)의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10]. 마지막 단계인 '6 단계 : 전문가 회의 개최'는 선택적인 단계[10]로 본 연구에서는 5단계의 수행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2.3.1 연구질문 개발 및 도출하기

명확한 연구질문은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연구질문을 통해 분석할 논문의 범주가 정해지므로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이 기술되어야 한다[13]. 따라서 연구질문을 설정할 때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초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념, 목표 인구집단, 관심, 건강결과와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14].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국내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는가?”이다.

2.3.2 관련연구 검색

본 연구의 문헌고찰 연구대상은 국내에서 출판된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술지 논문 중,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연구 전체이다. 본 연구의 관련 연구 검색은 시간과 연구 인력을 고려하여 5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se: Korean Medical database, 이하 KMbase), 한국학술정보(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이하 K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이하 NDSL),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 -formation Sharing Service, 이하 RISS), 누리미디어(DBpia: 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이다. 논문의 언어는 한국어로 제한하였고, 2인의 간호학 교수가 팀을 이루어 수기 검색을 통해 관련 연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검색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earch Strategy

Data base	Search	Total
KMbase	("nursing") AND ("mature student" OR "transfer student" OR "adult learner")	2
KISS		4
NDSL		88
RISS		36
DBpia		18
	Total	148
	Removal of duplicates	42
	New total	106

KMbase=korean medical database;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DBpia=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2.3.3 문헌선정

문헌선정 절차에는 정보수집 및 검토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경우 사후 또는 수정된 포함 및 배제 기준이 포함될 수 있다[10]. 연구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Pharm 등[14]이 제시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권고사항에 따라 연구선정 및 배제기준에 대한 검토회의를 개최한 후, 문헌선정의 전 과정은 2명의 간호학 교수가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자료선정 또는 제외기준에 따라 해당연구를 함께 검토하였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문헌들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중복된 문헌들을 제거하였다. 중복된 문헌에 대한 검색은 서지관리 프로그램 앤드노트(endnote)를 이용하였으며, 중복된 문헌들을 제거한 후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문헌선정 기준에 부합된 연구를 확인하였다. 이 후 본문 전체를 확인하여 문헌을 선정하였다. 배제되는 문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기록을 남겼으며 문헌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복 논문, 국내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논문, 국문이 아닌 논문, 본문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논문 및 본 연구질문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하였으며, 최종 19편의 연구가 선정되었다(Fig. 1).

2.3.4 자료기입

주제범위 문헌고찰에서는 자료추출 과정을 자료기입(data charting)이라 한다[10]. 검토된 문헌에서 핵심주제와 결과에 따라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우선 분석틀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개발된 분석틀을 자료기입 양식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는 두 개의 주요 범주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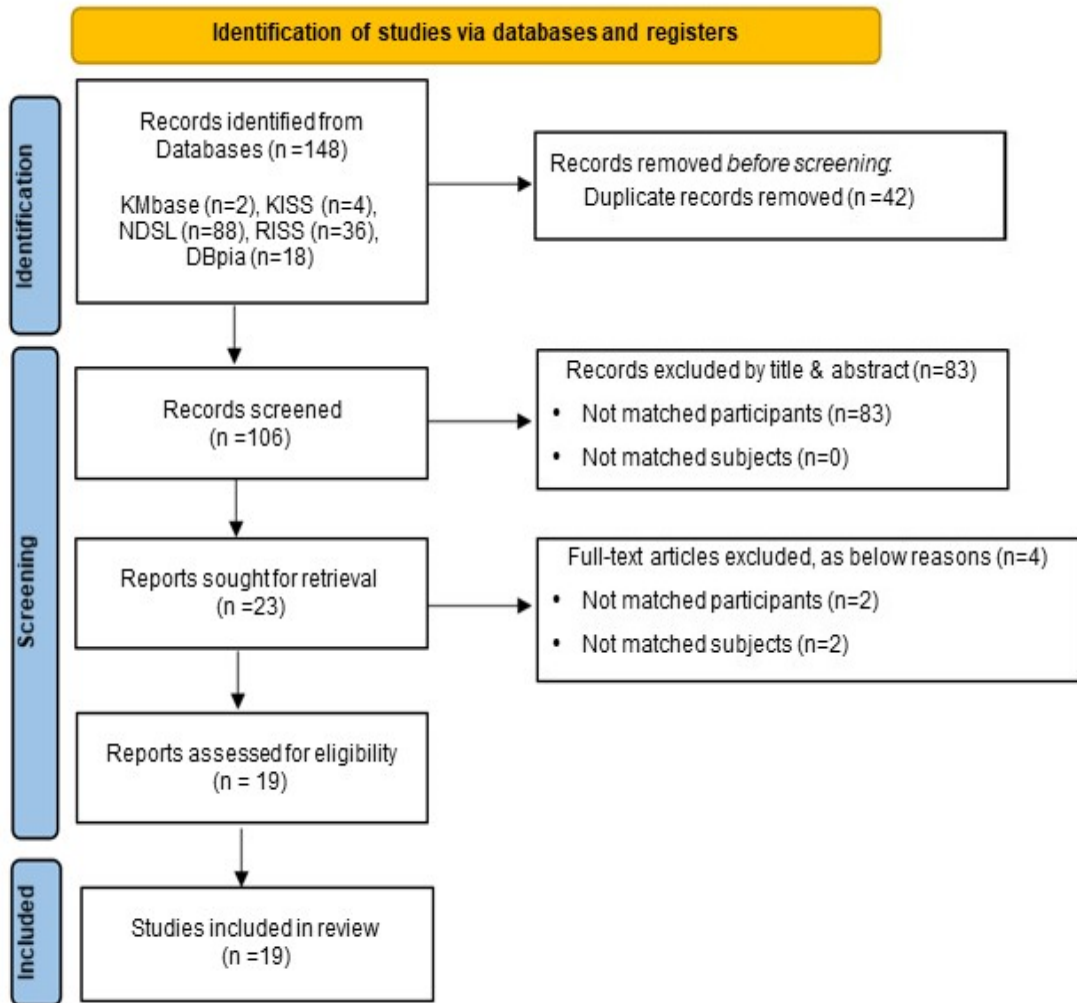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하였는데, 포함된 문헌의 일반적 특성(출판연도, 등재학술지, 연구설계, 연구대상)과 만학도 연구의 특성(명칭, 주제,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헌의 목록은 (Appendix)에 제시하였다.

2.3.5 결과분석, 요약, 보고

결과분석, 요약 및 보고하기 단계에서는 수집된 일반적인 정보와 관련된 기술적이고 수적요약(descriptive and numerical summary)과 수집된 특정정보에 대한 주제별 구조화(thematic construction) 과정을 수행한다[10]. 최종 선정된 19편의 문헌에 대한 연구결과 분석 및 요약은 III장 연구 결과에 보고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문헌의 일반적 특성

선정문헌들의 출판 및 연구관련 특성은 출판시기, 게재 학술지 등급,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2). 각 연구관련 특성에 적합한 문헌들의 세부사항은 (Appendix)에 나타내었다.

3.1.1 출판시기

출판시기의 경우 2015-2019년이 13편(68.4%)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이후 3편(15.8%), 2010년 이전 2편(10.5%), 2010-2014년 1편(5.3%) 순 이었다.

Table 2. Publication Characteristics and Research Design

Variables	Categories		n (%)	
Year of publication	-2010	A16, A17	2 (10.5)	
	2010-2014	A6	1 (5.3)	
	2015-2019	A1, A2, A3, A4, A7, A8, A9, A10, A11, A12, A13, A18, A19	13 (68.4)	
	2020-2021	A5, A14, A15	3 (15.8)	
Journal status	Korean citation index greated	A14	1 (5.3)	
	Korean citation index	A2, A3, A4,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5, A16, A17, A18, A19	16 (84.1)	
	Korean citation index candidated	A5	1 (5.3)	
	Other	A1	1 (5.3)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Descriptive	A7, A8, A11, A14, A18	5 (26.3)
	Qualitative	Phenomenology	A2, A3, A4, A6, A10, A12, A13, A16, A17, A19	10 (52.6)
		Grounded theory	A1	1 (5.3)
		Content analysis	A5, A15	2 (10.5)
		Q-methodology	A9	1 (5.3)
Research Participants	Grade	1	A19	1 (5.3)
		2		0 (0.0)
		3	A6, A12	2 (10.5)
		4	A1	1 (5.3)
		Mixed	A2, A3, A4, A5, A7, A8, A9, A10, A11, A15, A16, A17, A18	13 (68.4)
		Other	A13, A14	2 (10.5)
	Sex	Male		0 (0.0)
		Female	A1, A2, A3, A16, A17, A19	6 (31.6)
		Mixed	A4, A5, A6, A7, A8, A9, A10, A11, A13, A14, A15, A18	12 (63.2)
	Number of participants	1-10	A1, A3, A4, A6, A10, A12, A13, A15, A17, A19	10 (52.6)
		11-20	A2, A16	2 (10.5)
		21-30		0 (0.0)
		31 over	A5, A7, A8, A9, A11, A14, A18	7 (36.9)

3.1.2 게재학술지

게재학술지의 경우 Korean citation index (KCI) 등재지가 16편(84.1%)으로 가장 많았으며, KCI 우수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기타가 각 1편(5.3%) 이었다.

3.1.3 연구설계

연구설계는 질적연구가 14편(7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현상학 연구 10편(52.6%), 내용분석 2편(10.5%), 근거이론과 Q방법론이 각 1편(5.3%) 이었다. 양적연구는 5편(26.3%)이 있었으며 이는 모두 서술적 조사연구로 시행되었다.

3.1.4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학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가 13편(68.4%)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기타가 각 2편(10.5%),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각 1편(5.3%) 순 이었다. 연구대상 성별의 경우 남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12편(6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편(31.6%) 이었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상자 수는 10명 이하가 10편(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31명 이상 7편(36.9%), 11-20명 2편(10.5%) 순 이었다.

3.2 문헌의 내용관련 특성

선정문헌의 연구관련 특성은 만학도에 대한 명칭, 연구주제, 개념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3).

3.2.1 만학도의 명칭

연구에서 사용된 만학도에 대한 명칭의 경우 편입생으로 칭한 경우가 12편(6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학도 5편(26.3%), 성인학습자 2편(10.5%) 순 이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ture Student Studies

Variables	Categories		n (%)	
Title (n=19)	Mature student	A1, A2, A3, A4, A5	5 (26.3)	
	Adult learner	A18, A19	2 (10.5)	
	Transfer student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12 (63.2)	
Subject (n=19)	Adaptation	A1, A3, A5, A7, A8, A9, A11, A18	8 (42.1)	
	Experience	A2, A4, A6, A10, A12, A15, A16, A19	8 (42.1)	
	Employment	A13	1 (5.3)	
	Actual condition	A14	1 (5.3)	
	Identity	A17	1 (5.3)	
Concept	Quantitative (n=13)	Adaptation	A7, A11, A18	3 (23.1)
		Stress degree	A7, A11	2 (15.3)
		Stress Adaptation	A8	1 (7.7)
		Alienation	A7	1 (7.7)
		Critical Thinking	A8	1 (7.7)
		Self-Concept	A8	1 (7.7)
		Loneliness	A18	1 (7.7)
		Emotional Intelligence	A11	1 (7.7)
		Career Attitude Maturity	A11	1 (7.7)
	Actual condition	A14	1 (7.7)	
	Qualitative (n=75)	Department choosing	A1, A15, A19	3 (4.0)
		Academic difficulties	A1, A2, A3, A4, A5, A6, A9, A10, A12, A13, A15, A16, A17, A19	14 (18.7)
		Interpersonal difficulties	A1, A2, A3, A4, A5, A6, A9, A10, A12, A15, A16, A17	12 (16.0)
		Physical difficulties	A1, A3, A12, A16	4 (5.3)
		Financial problem	A1, A2, A12, A16	4 (5.3)
		Effort	A1, A2, A4, A5, A6, A9, A12, A13, A15, A16, A17, A19	12 (16.0)
		Maturity	A1, A3, A4	3 (4.0)
		Achievement	A1, A2, A10, A13, A15, A16, A19	7 (9.3)
		Develop into a profession	A1, A2, A4, A6, A9, A12, A15, A16, A17, A19	10 (13.3)
		Burden	A1, A6	2 (2.7)
Anxiety		A4, A10	2 (2.7)	
Role conflict	A3, A19	2 (2.7)		

3.2.2 연구주제

연구주제의 경우 만학도의 대학생활 적응과 경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 8편(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 실태조사 및 정체성을 다룬 연구가 각 1편(5.3%) 이었다.

3.2.3 연구개념

양적연구에서 측정된 개념은 적응이 3편(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 정도 2편(15.3%), 스트레스 대처, 소외감,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외로움, 감성 지능, 진로태도성숙, 실태/효율성 각 1편(7.7%) 이었다.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은 학업의 어려움이 14편

(1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노력 함이 각 12편(16.0%), 전문직으로서 발전추구 10편 (13.3%), 성취감 7편(9.3%), 체력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 각 4편(5.3%), 학과선택 이유와 성숙해짐 3편(4.0%), 부담감, 불안감 및 역할갈등 각 2편(2.7%) 순 이었다.

4. 논의

출판시기의 경우 2015-2019년이 13편(68.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이후 3편(15.8%), 2010년 이전 2편(10.5%), 2010-2014년 1편(5.3%) 순 이었다. 이는

2013년 까지 18-24세 구간의 대학 입학생수가 20만명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20만명 이하로 감소하며[4], 학령인구감소로 인하여 대학이 새로운 대학교육의 수요층인 성인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5],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교육기관이 2011년 184개 기관에서 2012년 200개 기관으로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간호교육기관의 편입생 수도 2천명을 넘어선 상황의 영향으로 생각된다[15].

연구설계는 질적연구가 14편(7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현상학 연구 10편(52.6%), 내용분석 2편(10.5%), 근거이론과 Q방법론이 각 1편(5.3%)이었다. 양적연구는 5편(26.3%)이 있었으며 이는 모두 서술적 조사연구로 시행되었다. 이는 현상학 연구가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간호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으로, 만학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학도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과 이를 사회적 맥락속에서 파악하기에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6].

연구대상은 학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가 13편(68.4%)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기타가 각 2편(10.5%),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 1편(5.3%) 순이었다. 이는 편입생의 경우 각 교육기관마다 편입학 제도가 다양하여 이들이 입학하는 학년이 각기 다르며, 1학년으로 입학하는 만학도 등과 같이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8,17,18]. 또한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일반학생과 달리 편입생의 경우 교육과정이 혼합되어 있어[19] 일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처럼 학년마다 학습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접근 방식보다, 연령을 중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12편(63.2%)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6편(31.6%)이었으며,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남자 편입생이 포함된 연구는 2012년에 처음 이루어 졌으며 2010년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이전까지는 간호집단에서 남자간호사의 비중이 미비하였으며, 남자 간호대학생 또한 흔한 존재가 아니었으나, 이 후 남자 간호대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남자 만학도의 수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20]. 연구 대상자 수는 10명 이하가 10편(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31명 이상 7편(36.9%), 11-20명 2편(10.5%) 순이었다. 이는 검토에 포함된 14편의 연구가 질적연구로 수행되었으므로 많은 수의 대상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양적연구로

수행된 5편의 경우 적게는 62명에서 많게는 196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는 각 연구방법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다[18,21].

연구에서 사용된 만학도에 대한 명칭의 경우 편입생으로 칭한 경우가 12편(6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학도 5편(26.3%), 성인학습자 2편(10.5%) 순이었다. 이는 교육기관에 따라 만학도의 기준을 25세 이상 혹은 30세 이상으로 하는 바와 같이, 아직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입학전형의 명칭과 전형의 자격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2,22]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각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공통된 기준과 명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구주제는 만학도의 대학생활 적응과 경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 8편(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 실태조사 및 정체성을 다룬 연구가 각 1편(5.3%)이었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과 이러한 생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이들이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 학생들과의 차이, 이들의 업무 능력을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양적연구에서 측정된 개념은 적응이 3편(23.1%), 스트레스 정도 2편(15.3%)으로 대학생활 중 사회적 적응이 낮았으며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9]. 이 외에도 스트레스 대처, 소외감,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 외로움, 감성지능, 진로태도성숙, 실패/효율성을 확인한 연구가 각 1편(7.7%)이었다.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은 학업의 어려움이 14편(18.7%)으로 가장 많았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방대한 수업내용과 암기 및 영어분야[1,22]와, 자기 주도적 학습보다 암기식 학습에 익숙하여 자율성과 논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21]. 다음으로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자신들을 외부인 혹은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선입견 및 세대차이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1,5,22], 그럼에도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가 각 12편(16.0%)이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문직으로서 발전을 추구[8,17,26]하는 모습을 확인한 연구가 10편(13.3%)이었으며, 이 외에도 성취감을 경험한 연구 7편(9.3%), 체력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확인한 연구 각 4편(5.3%), 학과선택 이유를 파악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경험한 연구 3편(4.0%), 부담감, 불안감 및 역할갈등 경험을 확인한 연구 각 2편(2.7%) 순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이는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생활과 적응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직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고려해 본다면, 지식, 기술, 전문직으로서의 자질, 정체성과 사회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8,23-25].

출판시기별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는 질적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8,17,26], 이 후 양적연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만학도 대상 연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만학도 간호대학생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떠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10년 이전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체성을 파악하는 연구[26]로 시작하여, 최근 실태조사 연구 [18]에 이르기까지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경험과 적응과정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문제의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는 2010년 이전 여성 만학도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8,26], 최근 남녀 모두를 포괄한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확인함으로써 [18,27,28] 일반 재학생뿐만 아니라 만학도 간호대학생 집단에서도 남학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에서 학업 및 대인관계 측면의 어려움을 확인한 결과를 통해 [8,17,26-28],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인으로서 관계를 형성하며 소통해야 하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이들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만학도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도피 혹은 회피보다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위의 요소들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학위논문, 정부 문서 및 학술대회 자료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문헌을 선정하였으므로 국내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한 연구이나, 국내 온라인데이터베이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을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주제범위 검토를 통해 현재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내용들이 주로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의 적응과 업무 능력을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만학도 출신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적 및 질적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측정 및 도출된 개념들은 생활, 적응 및 심리적 요소가 다수를 이루었다.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간호학과의 특성에 맞게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능력, 업무능력 등과 같은 지식, 기술,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외로움 및 소외감을 느끼며 대인관계와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 및 학과에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튜터링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대학생활의 적응을 도울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M. Cho, E. J. Kim, S. H. Sok, "Older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experienc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2, pp.671-683,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2.671>
- [2] J. H. Lee, Y. S. Ahn,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campus life for adult learner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13, No.3, pp.89-116, 2007.
- [3] K. S. Kim, "A narrative inquiry into later learners' motives for learning at university and their changed life experiences",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Vol.8, No.1, pp.257-282, 2020.
- [4]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Internet], 2020, Available

- from: <https://kess.kedi.re.kr/index> (accessed August. 8, 2020)
- [5] S. J. Son, H. J. Kim, "Study on experience in mature student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4, pp.501-520, 2017.
DOI: <http://doi.org/10.22251/ilcci.2017.17.24.501>
 - [6]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312-322, 2012.
 - [7] H. J. Seo, G. Y. Kim, S. J. Chang, "Effects of hospital characteristics on employment rate, working period and retirement of ward nurses in Korea: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based on HIRAS dat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50, No.6, pp.837-847, 2020.
DOI: <https://doi.org/10.4040/jkan.20190>
 - [8] K. R. Shin, E. J. Cha, Y. H. Kim, "The lived experience of a student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3, No.6, pp.722-730, 2003.
 - [9] Z. Munn, M. D. J. Peters, C. Stern, C. Tufanaru, A. McArthur, E. Aromataris, et al, "Systematic review or scoping review? Guidance for authors when choosing between a systematic or scoping review approach",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Vol.18, No.1, pp.143, 2018.
DOI: <https://doi.org/10.1186/s12874-018-0611-x>
 - [10] H. J. Seo, "The scoping review approach to synthesize nursing research evid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32, No.5, pp.433-439, 2020.
DOI: <https://doi.org/10.7475/kjan.2020.32.5.433>
 - [11] J. Kim, H. S. Choi, "Research trends in Korea on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A scoping review",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32, No.5, pp.455-471, 2020.
DOI: <https://doi.org/10.7475/kjan.2020.32.5.455>
 - [12] H. Arksey, L. O'Malley,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Vol.8, No.1, pp.19-32, 2005.
DOI: <https://doi.org/10.1080/1364557032000119616>
 - [13] J. Yost, D. Thompson, R. Ganann, F. Aloweni, K. Newman, A. McKibbin, et al, "Knowledge translation strategies for enhancing nurses' evidence-informed decision making: A scoping review",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Vol.11, No.3, pp.156-167, 2014.
DOI: <https://doi.org/10.1111/wvn.12043>
 - [14] M. T. Pham, A. Rajić, J. D. Greig, J. M. Sargeant, A. Papadopoulos, S. A. McEwen, et al, "A scoping review of scoping reviews: advancing the approach and enhancing the consistency", *Research Synthesis Methods*, Vol.5, No.4, pp.371-385, 2014.
 - [15] Korean Nurses Association, Nursing Statistics Yearbook [Internet], 2020. Available from: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_search.php?board=research&exec=search&category_no=1 (accessed August. 8, 2020)
 - [16] N. I. Lee,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 Vol.24, pp.91-121, 2005.
 - [17] K. H. Kim, E. H. Hwang, "Transfer-students' lived experience of the first semester in th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crisis overcome -", *Crisisonomy*, Vol.8, No.5, pp.123-142, 2012.
 - [18] S. H. Yang, H. J. Lee, H. Y. Kim, A. Min, E.Y. Cho, "Profile of the accelerated second-degree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program graduates and analysis of relative efficiency of program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4, pp.374-382,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374>
 - [19] M. K. Jeon, I. J. Kim, Y. S. Kim, M. Y. Han,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transfer students", *Crisisonomy*, Vol.14, No.7, pp.117-130, 2018.
DOI: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18.14.7.117>
 - [20] Korea Nurses Association, "Male nursing students 10,000 people ages", *The Korean Nurse*, Vol.52, No.2, pp.17-18, 2015.
 - [21] H. S. Park, J. M. Yun, Y. M. Kim, I. Y. Choi, J. H. Hwang, "Critical thinking, self-concept and stress adaptation of transfe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3, No.3, pp.320-330, 2016.
DOI: <http://doi.org/10.7739/jkafn.2016.23.3.320>
 - [22] H. Kim, "Late-starting wome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school life adaptation in department of nurs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9, No.5, pp.143-154, 2018.
DOI: <http://doi.org/10.22143/HSS21.9.5.11>
 - [23] G. M. Foster, B. G. Anderson, Medical Anthropology. Gu BI, translator. Seoul: Hanul; 1994. p.1-465.
 - [24] F. Tang, A. Chan, "Learn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a clinical partnership model: An exploratory qualitative analysis", *Nurse Education Today*, Vol.75, pp.6-12, 2019.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9.01.003>
 - [25] J. Thomas, A. Jinks, B. Jack, "Finessing incivility: the professional socialization experiences of student nurses' first clinical placement, a grounded theory", *Nurse Education Today*, Vol.35, No.12, pp.4-9, 2015.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5.08.022>
 - [26] Y. K. Kim, M. O. Cho, J. H. Yang, "The experiences of identity developing among the enroll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6, No.1, pp.15-31, 2005.

- [27] M. K. Byeon, S. J. Park, E. Y. Choi, "The Experi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in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 with the application of content analysis technique -",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4, No.4, pp.65-74, 2020.
DOI: <https://doi.org/10.34089/jknr.2020.4.4.65>
- [28] M. J. Kim, S. H. Kim, E. K. Byun, "The experiences of students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at local universitie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8, No.2, pp.366-375, 2016.
DOI: <http://doi.org/10.13000/JFMSE.2016.28.2.366>

Appendix1.

The List of Reviewed Articles

- A1. S. H. Kim, H. I. Chung, "Adaptation process of nursing students who started their studies late",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21, No.1, pp.83-104, 2016.
- A2. S. J. Son, H. J. Kim, "Study on experience in mature student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4, pp.501-520, 2017.
DOI: <http://doi.org/10.22251/ilcci.2017.17.24.501>
- A3. H. Kim, "Late-starting wome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school life adaptation in department of nurs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9, No.5, pp.143-154, 2018.
DOI: <http://doi.org/10.22143/HSS21.9.5.11>
- A4. Y. M. Cho, E. J. Kim, S. H. Sok, "Older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experienc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2, pp.671-683,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2.671>
- A5. M. K. Byeon, S. J. Park, E. Y. Choi, "The Experi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in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 with the application of content analysis technique -",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4, No.4, pp.65-74, 2020.
DOI: <https://doi.org/10.34089/jknr.2020.4.4.65>
- A6. K. H. Kim, E. H. Hwang, "Transfer-students' lived experience of the first semester in th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crisis overcome -", *Crisisonomy*, Vol.8, No.5, pp.123-142, 2012.
- A7. H. K. Cho, S. K. Chung, "Relationship among college life stress, alienation and college adjustment: Focused on transferred and non-transferr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5, pp.2779-2793, 2015.
- A8. H. S. Park, J. M. Yun, Y. M. Kim, I. Y. Choi, J. H. Hwang, "Critical thinking, self-concept and stress adaptation of transfe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3, No.3, pp.320-330, 2016.
DOI: <http://doi.org/10.7739/jkafn.2016.23.3.320>
- A9. I. J. Kim, M. K. Jeon, Y. S. Kim, "Type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for transfer nursing students - Using Q methodology -", *Crisisonomy*, Vol.13, No.2, pp.115-126, 2017.
DOI: <http://doi.org/10.14251/crisisonomy.2017.13.2.115>
- A10. J. Y. Hong, S. Y. Lee, "Experience of transferring students experience in health care to nursing depart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4, No.4, pp.273-277, 2018.
DOI: <http://doi.org/10.17703/ICCT.2018.4.4.273>
- A11. M. K. Jeon, I. J. Kim, Y. S. Kim, M. Y. Han,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transfer students", *Crisisonomy*, Vol.14, No.7, pp.117-130, 2018.
DOI: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18.14.7.117>
- A12. H. N. Yeo, "University lif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 transfer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8, pp.503-513,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8.503>
- A13. K. H. Kim, E. H. Hwang, "Nursing transfer-students' employment experience",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20, No.2, pp.150-159, 2019.
DOI: <https://doi.org/10.22284/qr.2019.20.2.150>
- A14. S. H. Yang, H. J. Lee, H. Y. Kim, A. Min, E. Y. Cho, "Profile of the accelerated second-degree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program graduates and analysis of relative efficiency of program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4, pp.374-382,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374>
- A15. M. J. Kim, S. H. Kim, E. K. Byun, "The experiences of students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at local universitie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8, No.2, pp.366-375, 2016.
DOI: <http://doi.org/10.13000/JFMSE.2016.28.2.366>
- A16. K. R. Shin, E. J. Cha, Y. H. Kim, "The lived experience of a student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3, No.6, pp.722-730, 2003.
- A17. Y. K. Kim, M. O. Cho, J. H. Yang, "The experiences of identity developing among the enroll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6, No.1, pp.15-31, 2005.
- A18. E. J. Yang, K. H. Kim, "College life adaptation and loneliness among non-traditional adult learners majoring in nurs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5, pp.461-469,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5.461>
- A19. E. M. Choi, "A study on the university's learning experiences of career break wom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0, pp.1357-1376, 2019.
DOI: <http://doi.org/10.22251/ilcci.2019.19.20.1357>

Appendix2. Summary of Result of Studies

No.	Author(year)	Participant	Research design	Research subject	Result
A1	S. H. Kim, H. I. Chung (2016)	Mature student Female 9 Age mean 43 (year)	Qualitative (Grounded theory)	Adaptation	Department choosing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Physical difficulties Financial problem Develop into a profession Effort, Maturity Achievement, Burden
A2	S. J. Son, H. J. Kim (2017)	Mature student Female 12 Age 30~50 (year)	Qualitative (Phenomenology)	Experience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Financial problem Develop into a profession Effort, Achievement
A3	H. Kim (2018)	Mature student Female 9, Male Age mean 38.8 (year)	Qualitative (Phenomenology)	Adaptation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Physical difficulties Maturity, Role conflict
A4	Y. M. Cho, E. J. Kim, S. H. Sok (2019)	Mature student 7 Age 30~40 (year)	Qualitative (Phenomenology)	Experience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Develop into a profession Effort, Maturity, Anxiety
A5	M. K. Byeon, S. J. Park, E. Y. Choi (2020)	Mature student Female 45, Male 6 Age mean 35 (year)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daptation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Effort
A6	K. H. Kim, E. H. Hwang (2012)	Transfer student Female 8, Male 2 Age mean 25.2 (year)	Qualitative (Phenomenology)	Experience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Develop into a profession Effort, Burden
A7	H. K. Cho, S. K. Chung (2015)	Transfer student Female 74, Male 18 Age mean 23.2 (year)	Quantitative (Descriptive)	Adaptation	Stress degree (high) Stress degree & Alienationcorrelation correlation (+)
A8	H. S. Park, J. M. Yun, Y. M. Kim, I. Y. Choi, J. H. hwang (2016)	Transfer student Female 167, Male 29 Age mean 28.12 (year)	Quantitative (Descriptive)	Adaptation	Stress Adaptation (high) Critical Thinking (high) Self-Concept (low)
A9	I. J. Kim, M. K. Jeon, Y. S. Kim (2017)	Transfer student Female 26, Male 9 Age 20~40 (year)	Qualitative (Q-methodology)	Adaptation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Develop into a profession Effort
A10	J. Y. Hong, S. Y. Lee (2018)	Transfer student 9	Qualitative (Phenomenology)	Experience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Achievement, Anxiety
A11	M. K. Jeon, I. J. Kim, Y. S. Kim, M. Y Han (2018)	Transfer student Female 125, Male 17 Age mean 27.7 (year)	Quantitative (Descriptive)	Adaptation	Adaptation (low) Stress degree (high) Emotional Intelligence (high) Career Attitude Maturity (high) Factors influencing to adaptation: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satisfaction and motivation
A12	H. N. Yeo (2019)	Transfer student 8	Qualitative (Phenomenology)	Experience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Physical difficulties Financial problem Develop into a profession Effort
A13	K. H. Kim, E. H. Hwang (2019)	Transfer student Female 2, Male 3 Age mean 29 (year)	Qualitative (Phenomenology)	Employment	Academic difficulties Effort, Achievement

A14	S. H. Yang, H. J. Lee, H. Y. Kim, A. Min, E. Y. Cho (2020)	Transfer student Female 50, Male 12 Age mean 24.3 (year)	Quantitative (Descriptive)	Actual condition	Actual condition : There are differences in socio-cultural perceptions of admission motiv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The male proportion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17.5% in 2008 to 29.7% in 2016
A15	M. J. Kim, S. H. Kim, E. K. Byun (2016)	Transfer student Female 8, Male 2 Age mean 43(year)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Experience	Department choosing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Develop into a profession Effort, Achievement
A16	K. R. Shin, E. J. Cha, Y. H. Kim (2003)	Transfer student 14	Qualitative (Phenomenology)	Experience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Physical difficulties Financial problem Develop into a profession Effort, Achievement
A17	Y. K. Kim, M. O. Cho, J. H. Yang (2005)	Transfer student 10	Qualitative (Phenomenology)	Identity	Acade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Develop into a profession Effort
A18	E. J. Yang, K. H. Kim (2017)	Adult learner Female 94, Male 16 Age mean 33.9 (year)	Quantitative (Descriptive)	Adaptation	Adaptation & Loneliness correlation (-) Factors influencing to adaptation: recognition of classmates, help with learning methods, professor's motivation
A19	E. M. Choi (2019)	Adult learner Female 6 Age 30 over (year)	Qualitative (Phenomenology)	Experience	Department choosing Academic difficulties Develop into a profession Effort, Achievement Role conflict

임 동 희(Dong-Hee Lim)

[정회원]



- 2018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전공 (간호학 석사)
- 2020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20년 9월 ~ 현재 :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조 영 란(Young-Ran Cho)

[정회원]



- 1988년 8월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03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3년 9월 ~ 2008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2012년 9월 ~ 현재 :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